

한국문화교류 소식

5호 2012년 9월 15일 발행 · 발행인 이광규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International Center for Korean Culture(ICKC-Seoul)

100-272 서울시 중구 필동2가 10 층무빌딩 303호 전화 02-2285-1070 팩스 02-2285-5070

메일 hangyobon@gmail.com 홈페이지 www.ickc-seoul.net



칼럼 해란강변에 피어나는 역사의 향기



김길남
ICKC 공동대표, 단국대학교 초빙교수

우리 민족이 한반도를 떠나 해란강변에 민족공동체를 이루어 살기 시작한 것은 AD 668년, 고구려 멸망 후 유민들이 정착한 때부터라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이주가 시작된 것은 1830년부터 1860년까지 집단이주를 통해 자연부락형 촌락을 이루며 중국인들의 소작농으로 살고 있었던 때로 볼

수 있겠다. 이후 1881년 청나라 봉금령이 해제되고 함경도 지역의 계속된 흉년과 조선 말기 탐관오리들의 학정을 피해 1899년 김약연을 중심으로 한 집단이 이주하여 장계, 이주 등 10여개의 한인자연부락을 통합하였다. 이들이 조선을 밝게 하자는 취지로 명동이라 이름하고 명동촌을 건설한 것이 오늘날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시효라 할 수 있다.

고구려와 발해의 선조들이 대륙의 중심세력으로 활동하던 땅에 민족 문화를 계승하여 꽃피우고 있는 한민족 공동체로 조선족 연변자치주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있고 감격스런 사실이다. 1952년에 창립되어 60주년을 맞은 연변자치주와, 이념과 이데올로기를 초월하여 단절 40년 만에 체결한 한중수교 20주년을 경축하는 행사에 한국문화 국제교류운동본부 회원 45명이 참여, 연변의 역사적·미래적 의의를 느끼는 귀한 경험을 하였다. 이에 해란강 물결 따라 흘러온 우리 민족의 역사를 찾아본다.

간도의 명동촌

한인촌(明東村)은 현재 중국의 행정구역으로 중화인민공화국 길림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 용정시 일대를 말한다. 명동에서 한인들이 정착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할 때 토지의 10분의 1을 학교용 부지로 기부하여 공동 토지를 마련하고 한민족 공동체를 기초로 하는 한인사회 명동촌이 출발했다. 이들은 공동토지에 전통적인 한국의 서원과 서당, 초기 현대 학교 기능을 하는 서원들을 세우고 1907년에는 '간도교민회'를 창립하여 한인들의 생활안정 계몽교육, 민족정신 고취와 권익옹호 활동으로 명동촌 최초의 한인회 기능을 하는 교민회를 창립하고 회장에 김약연을 선출한다. 1910년에는 여러 서원들을 연합하여 '간민교육회'를 창립하여 서원들의 교육 효과를 높이고 다시 한인 자치기능을 하던 '간민회'로 발전한다. 명동촌을 이끌어간 한인지도자로는 김약연 간도교민회 회장, 이동휘 상해임시정부 국무총리, 이동녕임시정부 대통령 직무대행 이준, 이상설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고종황제 특사 등이 있었다.

독립투사 안중근은 블라디보스톡으로 떠나기 전, 명동촌에서 동지들과 함께 독립 의지를 모으고 신무기활용법을 익혔다. 중광단(重光團)을 조직하여 활동한 반일명장 서일은 청년들에게 독립정신 함양과 군사교육을 실시하였고, 한인자치기구인 간민회의 총무, 상해임시정부 북간도 대표를 역임한 정재민 목사는 명동촌을 중심으로 한 한인촌에 3년 동안 70여개 교회를 개척하고 한인사회지도자 김약연, 문치정, 김하규, 남위언, 마진 등을 기독교로 개종시켜 항일민족운동의 정신적 지표로 삼게 하는데 크게 기여한다.

중국주류사회로 진입한 주덕해는 연변조선족 자치주 정부 초대주석과 길림성 부 성장 그리고 전국 인민대표회의 제3기 민족위원회 부주임을 역임하여 한인사회 대표적 지도자로 활약했다. 문화 예술분야에서는 영화인 나운규와 함북 명천에서 이주한 향토작가 김창길이었다.

명동촌에서 출생한 2세로는 채수향, 조충열, 윤동

주, 문익환 등이 있다. 채수향은 신화적인 항일투쟁으로 화룡현위의 초대 공산당 서기로 활동하였고 조충열은 민족 계몽운동과 항일투쟁, 중화인민공화국 건국투쟁에 참여하여 국민당 계열의 치안 유지대를 섬멸, 해산시켜 중국공산당으로부터 중화인민공화국 건국투쟁의 영웅이 되었다. 민족 시인 윤동주는 1942년 도쿄 입교대학문학부 영문학과에 입학할 때까지 주옥같은 16편의 시와 산문을 썼으며 대표작 서시를 발표했다. 문익환 목사는 시인 윤동주와 초등학교와 중학에서 동문수학하고 만주의 봉천신학교를 졸업하였고 한국으로 와서 한국신학대학을 졸업하였다.

간민회의 출범

1911년, 신해혁명 이듬해 탄생한 중화민국은 북간도 지역 한인들이 자치단체를 창립할 수 있는 외부상황을 조성하였기에 이동춘, 김약연, 김입 등이 주동이 되어 조선인상호간에 친선도모와 자립정신을 함양하고 중국의 국법준수는 물론 간도에 정착한 중화민국 공민으로써 책임과 의무를 다 할 것이라는 간민회 설립 청원서를 제출, 길림성으로부터 간민회 설립허가를 받았다. 이에 1913년, 중국 최초의 한인 자치단체로 출발한다. 간민회는 오늘날 한인회 기능과 중국 길림성 연변자치주의 기능 그리고 독립운동 단체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며 중국 시민권 신청 업무(귀화입적업무)지원, 호구조사와 간민회비 징수, 토지매입 관리와 지원을 총괄하며 자치 기구를 갖추었다.



연변조선족 자치주 설립

1909년 간도협약이후 1914년, 일제의 강압으로 간민회는 중국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해산되었으나 간민교육연구회라는 이름으로 지하활동을 계속하며 많은 독립투사를 양성, 3·1항쟁과 반일무장투쟁의 선봉인사들을 양성하였다.

1919년 서울에서 3.1운동이 일어나자 용정 명동촌에서 명동학교를 중심으로 한 300여명의 학생들이 총열대를 조직하여 한인 3만여 명이 참가하는 항일집회를 열고 불법적인 일제침략행위를 국제사회에 알렸다.

1945년 8월 20일 소련군과 동북항일연군은 간도 임시정부를 수립했으나, 그해 11월 중국공산당은 간도 임시정부를 해산시키고 '연변 행정 독찰 전원공사'를 설치하고 1948년 3월에는 연변전구를 창립한다. 그 후 1952년 9월 3일 연변전구를 철폐하고 조선족들의 중화인민공화국 건설에 기여한 공로와 항일투쟁 그리고 간민회를 통한 자치역사를 참고하여 한민족 문화를 유지 계승할 수 있는 '연변조선족 자치구'가 설립되었다. 자치주내 조선족은 81만 5,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40.7%를 차지하고 있다. 행정적으로는 연지(延吉)·투먼(圖門) 등 5개시와 3개현으로 구성되어 있고, 1952년 12월, '연변조선족

자치구'는 '연변조선족자치주'로 승격되어 올해로 자치주 설립 60주년을 맞이했다.

연변자치주는 초등학교에서 대학까지 한국어(조선어)로 교육하는 학교를 설립 운영하고 중국의 한문이 아닌 한글을 자치주의 주 언어로 쓰고 있으며, 주장, 시장 등 자치단체장은 한민족(조선족)이 담당하도록 연변 조선족 자치주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우리 민족 전통무형 문화유산 아리랑, 판소리, 학무, 장고춤, 그네, 널뛰기 가야금 등 12개를 민족(조선족) 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중국의 56개 민족 가운데 우리 한민족과 몽골족만이 중국 영토 밖에 그들의 모국을 가지고 있다. 한중수교 20년, 연변조선족 자치주 6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의 언어와 문화를 교육, 발전시키고 있는 연변조선족 자치주는 한민족의 소중한 문화자산이며 21세기 한·중 동반자 시대에 민족사적 사명을 가진 소중한 집단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일송정 푸른 술은 늘어 늘어 갔어도 한줄기 해란장은 천년 두고 흐른다...'

선조들의 애국, 선구자적 정신과 가치가 21세기 우리 민족 역사에서 더욱 만개한 꽃을 피우기를 기대한다.



연변대학 방문

연변자치주 60주년 기념식이 열린 체육관 전경



허드슨 강을 건너 한국어 수업



황정숙
미국 뉴저지 팰리세이드파크 고등학교 한국어 교사

2012년, 올해로 미국에 온지 만 20년이 됩니다. 사대에서 한국어 교육을 전공한 후, 20년 전에 남편을 따라 미국 동부로 온 이후로 지금까지 주립대학과 토요한국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무 살 무렵부터 한국에서 국어 교사였지만 미국에서는 정식 교사 자격증이 없었기에 갖가지 한국어 교육의 기회를 놓치곤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40이 넘는 나이에 미국 정규학교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받기 위해 가족들의 동의를 얻어 어렵게 공부를 시작했고, 2년 만에 뉴저지 럿거스 주립대학의 한국어 교사 양성 과정을 마치고 처음으로 미국 뉴저지 정규학교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받았습니다.

2010년, 뉴저지에서는 최초로 팰리세이드파크 고

등학교(Palisades Park High School)에서 정규 외국어 과목으로 한국어 과목을 채택했고, 제가 뉴저지 1호 한국어 교사로 들어가서 한국어 수업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이 학교는 대도시 뉴욕의 허드슨 강을 건너 위치한 뉴저지의 고등학교로 특별히 한인 교포 학생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한국 부모님들의 열정도 대단하고 나름 성공한 한인들도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근처에 한국 회사와 한국 상가, 한국 식당들이 많은 지역이라 한국어에 관한 주민들의 관심도 많은 지역입니다. 방과 후나 주말에 일을 하는 외국 학생들은 한국어를 배워서 더 자신감 갖고 일을 하려 하고, 한국인 학교 친구들이 많기에 새로운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위해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합니다.

2010년 9월, 대단한 열정과 기대로 등교를 했지만 첫 고등학교에서의 한국어 수업은 주립대학에서의 10년간 한국어 지도 경력이나 토요 한국학교에서의 20년 한국어 지도 경력을 조롱하며 저를 겸손케 하였습니다. 다양한 민족의 학생들이 다양한 수준 차이로 한국어 반을 찾았기에 언어 수준도 달랐으며 연령도 달랐고, 학습 태도도 달랐고, 학습 동기 역시 달랐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그들에게 흥미를 갖게 하려고 고등학교 한국어 수업 커리큘럼에 한국 문화 체험도 넣어서 김밥 만들기와 호떡 만들기, 붓글씨 배우기, 전통 민화 그리기 수업, 사물놀이 배우는 수업 등을 하며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알렸습니

다. 또한, 떡국 만들기, 녹차 마시기와 부채 만들기, 옷놀이와 제기차기, 투호 등의 전통 민속 놀이 배우기, 추석 대잔치 행사, 태권도 배우기, K-pop 소개 등을 시도하면서 한국어 반 학생들에게 소중한 우리의 것들을 나누어 보려고 밤을 새워 행사를 계획하기도 했습니다. 근처의 한국 마켓의 후원을 받으며 현장 체험의 장도 계획을 해 보았고, 'Beautiful Korea'란 주제로 전교생을 대상으로 티셔츠 공모전을 해서 입상자에게는 아이패드를 선물, 한국어 반 티셔츠를 만들어 한국어 반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통해 학생과 동료 교사에게 자연스럽게 우리의 전통 문화를 알리고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우리 집 이층의 서재는 온갖 한국어 교재와 한국어 학습 CD와 낱말카드, 한글 자모 차트, 포스터, 게임보드 등으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내일은 어떤 게임을 미래시제 문형 수업과 연결시킬까?' '체대로 따라오지 못 하는 에릭(Eric)에게는 어떤 방법으로 지도를 하면 더 효과가 있을까?' '한국어가 알렌(Allen)한테 정말 그렇게 어려운 언어인가?' 등의 생각을 하면서 우리 집 세 아이의 학업보다 그네들의 학업에 더 열의를 보이면서 긴 한숨에 염려를 쉬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좋은 생각이라도 나면 늦은 밤에 가게에 나가 학습 자료로 쓸 만한 소재를 구해 오기도 합니다. 큰 결심을 갖고 한국어 반에 스

스로 문들 두드리고 찾아온 고마운 학생들인 만큼, 진정한 보람을 얻고 돌아가게 해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수업을 통해 그네들의 영혼과도 교통하고 싶은 진심이 있습니다.

사랑해 달라며 일부러 반항적인 행동으로 시선을 끄는 아이들, 상처투성이라며 고집스레 시비를 거는 아이들, 험한 욕을 입에 담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아이들, 귀한 집의 귀한 몸이니 함부로 대하지 말라 거드름을 피우는 아이들, 모든 행실이 바르기에 마냥 정이 가는 아이들을 매일 만납니다. 부모가 누군지 정말 만나보고 싶을 만큼 예쁘게 자란 아이들도 만납니다. 저는 그들에게 어느 날은 푸근한 상담자가 되어 주기도 하고, 때론 눈물 많은 엄마가 되어 주기도 하고, 친한 친구가 되어 주거나 엄한 스승이 되어 주기도 합니다. 그러다가도 어떤 때는 모두 실패한 무능력한 교사로 지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곳 미국에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의 말과 글을 통해 고향의 내음을 맡게 해 주고 싶습니다. 오래 전 선대로부터 이미 받은 것을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한다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말입니다.

고등학교 한국어 학습 현장에서 만난 학생 중에는 한국 문화를 전혀 접해 보지 못한 외국 학생들도 많습니다. 한류 문화의 영향과 높아져 가는 한국의



위상 덕에 외국인의 한국어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은 아시아권 학생뿐만 아니라, 세계의 다양한 민족들이 한국어에 관심을 갖고 한국어 수업을 찾아 들어옵니다. 높아진 한국의 위상도 이에 큰 몫을 한 것 같습니다. 요즘 학교에서 복도를 오가면 손을 들어 “Hi, Mrs. Cho!” 를 외치는 학생보다는 머리를 숙여 “안녕하세요?” 로 공손히 인사를 하는 학생들이 더 많아져 여기가 한국인가 스스로 의아해 하기도 합니다.



으로 아이들과 교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온 몸으로 우리의 것을 전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허드슨 강 너머의 한국어 뿌리내림을 위해 여전히 힘겨운 몇 편의 시를 읊조려 보렵니다.

저는 내일도, 새로운 계절 속에서도 한국어를 가르치는 강단이라는 이국의 터 위에서 부지런한 발돋움을 시도할 것입니다. 우둔한 욕심일지 모르지만, 늙어가는 나이와 상관없이 이전보다 더 총명한 눈빛

■ 한국어 보도

릿지필드학군, 한국어를 제2외국어 필수과목으로...

미국 뉴저지 릿지필드 학군이 올해 가을학기부터 중학교 과정으로는 뉴저지 지역 최초로 한국어를 제2외국어 필수과목으로 개설한다. 팰팍 학군에 이어 지난해 한국어반을 정규 개설한 릿지필드 학군이 최근 한국어를 중학교 필수과목으로 채택함에 따라 120명이 넘는 릿지필드 중학교 6학년생들은 앞으로 한국어를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덕분에 학군 내 한국어반 수강 인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지난 학기 36명이 수강했던 한국어반 등록자 수도 올 가을에는 두 배 이상 늘어난 80명에 육박할 전망이다.

뉴저지에 가장 먼저 정규 한국어반을 개설한 팰팍 학군도 20일 현재 약 130명의 학생이 등록한 것으로 잠정 확인돼 뚜렷한 등록생 증가세가 감지되고 있다. 첫째 27명으로 시작한 팰팍 학군의 정규 한국어반은 지난해 110명이 수강하면서 지역 일원에서 한국어반 운영의 역할 모델이 되고 있다. 올해 가을학기에는 ‘한국어반 IV’ 개설도 논의 중이다. 팰팍 학군은 현재 ‘한국어반 I’ 2개, ‘한국어반 II’ 1개, ‘한국어반 III’ 1개, ‘8학년 한국어반’ 1개 등 총 5개 학급을 운영 중이며 ‘한국어반 IV’가 개설되면 총 6개 학급으로 늘어나게 된다.

출처_ 미주한국일보 2012-08-21

태권도 전파의 무한한 잠재 시장, 중국



권 순
Master K 한중태권도 교육관 관장

“청도 Master K 한중 태권도 교육관에는 한국어 수업이 수련에 포함되어 있다. 수련동작도 다 한국어로 배워 뿌듯하다.”

“다음 기회가 허락된다면 한국을 방문하여 국기원에 가고 싶고 한국문화에 대해 알고 싶다.”

“제2의 국적이 가능하다면 나는 한국을 선택하고 싶을 정도다.”

라고 할 정도로 한중 태권도 교육관 수련생과 학부모권도들은 태권도에 대한 자부심과 감탄을 아끼지 않는다...

한국에서 태권도장을 인수, 운영 중이던 나는 IMF이후 초등학생수의 감소, 태권도장의 포화로 인한 과다경쟁 등 태권도장 경영의 위기론이 대두된 2005년 이전부터 중국 대륙에 관심을 가지고 눈을 돌리게 되었다. 세계 인구 63억 중 총 16억 인구를

차지하는 중국은 이제 무한한 잠재력을 넘어 세계 경제 중심의 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다. 중국 청도는 한국기업만 해도 무려 9,000여 개에 이르며 교민 또한 13만 명에 달하는 한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한국인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아름다운 도시이다. 청도를 선택한 나의 시작은 그리 순탄치 않았다. 왜냐하면 태권도 용어는 한국어로 가르쳐야 하지만 문화적인 차이와 언어 구사력이 없다면 성공을 보장 받을 수 없음을 직시했기 때문이다. 나는 언어 구사력을 중국인 수준까지 향상시키기 위해 주야로 공부하였고 문화적인 차이를 줄이기 위해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였다.

1년여의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고 있을 2006년 4월, 태권도의 중국 전파와 제자들에게 미래에 대한 태권도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중국 청도시에 Master K 한중 태권도 교육관(www.masterk.org)을 개관하게 되었다. 태권도의 가치와 나의 열정을 알리기 위해 선택한 전략은 첫째, 가르침의 열정, 둘째, 한인 사범으로서의 자부심, 셋째, 중국내 최고의 시설, 넷째, 다양한 프로그램, 다섯째, 최고의 서비스, 여섯째, 유일한 한국인 사범 지도, 일곱째, 주말강화 프로그램 등 중국 전체를 통틀어 단연 최고의 시설과 태권도 본연의 교육적 가치를 나타내기 위한 ‘고급화 전략’이었다.

초기 6명의 한국 사범들과 함께 대한민국 태권도 전파와 후진양성에 열심을 다한 결과, 태권도를 접해 본 중국인들은 한인 사범들을 통한 태권도의 질

적인 교육과 태권도 정신, 효 등 한국식 인성교육에 감동을 받아 Master K 태권도의 우수성과 차별화를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매년 한/중태권도 문화 교류단 개최, 한국어 수업, 국기원 품새 강사 초청 특강, 한국 국가대표 겨루기 선수 특강, 학부모 참여 공개심사 대회, 한중 태권도 교육관 한마당 대회 개최, Master K 시범단의 백화점·방송국 초청 공연 등의 다양한 이벤트와 행사는 다른 태권도장들이 모방하기 어려운 획기적인 것들이었다. 그 중 단연 손꼽히는 것은 ‘한/중 태권도 문화교류단’과 ‘중/한 태권도 문화교류단’이다. 매년 1월, ‘한/중 태권도 문화교류단’을 통해 100 여명의 한국 수련생이 중국 청도를 방문하여 태권도를 통한 한/중 문화교류에 힘을 쏟고 있으며, 답방의 의미로 매년 7, 8월 ‘중/한 태권도 문화교류단’을 모집하여 80여명의 중국 수련생들이 한국을 방문하여 태권도 종주국으로서 중국 제자들에게 국기원 방문과 한국의 역사체험 및 문화체험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중국 국가대표 선수들의 금메달 수상 등을 계기로 매스컴을 통한 태권도 홍보가 주도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태권도의 흥미와 관심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던 2009년 5월, Master K 한중 태권도 교육관 제 2관을 개관하게 되었다. 예상은 적중했으며 분관 또한 본관보다 더 큰 공간(한국평수 320평)과 최고의 시설, 한인사범의 지도로 그 지역 내에서 단연 최고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



나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청도에 첫발을 디뎠을 때의 목표를 향해 또다시 나아갔다. 제자들의 중국 진출 마련과 비전을 위한 ‘한/중 태권도 전문유학 아카데미’ 설립(일명 Qing-Dao Sino-Korean Academy)이 그것이다. 한국에 중국 유학원은 많지만 태권도 전문 유학은 한국에서조차 최초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중국으로 유학 및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는 일반 유학으로, 태권도 지도자를 희망하는 한국 제자 및 추천된 경기인 출신 선수들에게는 Master K 태권도 교육관 사범으로서의 지도력 및 경영법 등 전문 커리큘럼으로 다양한 중국 대학진학과 지도자 생활에 대한 길을 열어주었다. 마지막으로 Master K를 그룹화하여 유학 아카데미 외에 MK(Master K) 광고기획사를 설립하여 각종 문서의 디자인과 태권도 홍보물 및 판촉물에 차별화를 두었다.

이후 입소문은 수많은 학부모들을 거쳐 청도에서 태권도를 운영하는 중국인 지도자들에게까지 퍼져나갔고 수시로 태권도장에 방문하여 노하우 및 경영 세미나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찾아올 때마다 하나를 가르치기보다 프랜차이즈가 된다면 Master K 태권도의 영향력은 커질 것이며 중국 대륙에 태극기가 휘날리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후 바로 Master K 태권도 프랜차이즈를 기획, 실행하게 되었다. 이로써 나는 현재 Master K를 그룹화하여 산하에 Master K 한중 태권도 교육관과 MK 광고기획, Master K 한중 태권도 전문 유학 아카데미



와 한국 2개, 중국 1개의 프랜차이즈 가맹도장을 두고 있다. 이외에도 중국내 한인 사범 지도자들을 대표하는 '재중국 한인 태권도 사범회'에 전무이사직을 수행하며 한인사범들의 권익보호와 한인사범들의 중국 진출, 국기원과 중국 태권도 협회, 산하 외국적 관리위원회와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를 위해 불철주야 지금 이 시간에도 열심히 뛰고 있다.

현재 중국은 2007년 중국태권도협회 설립과 국기원과의 MOU 체결로 본격적으로 태권도가 대중문화에 들어서기 시작하였으며 지금은 각 성/시 태권도 협회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중국정부에서도 앞으로 태권도 1억 인구를 만들기 위한 방안과 모색

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중국은 무한한 잠재 시장을 가진 기회의 땅이라고 자부한다. 그러므로 해외에 나가 태권도 지도자로서의 성공을 꿈꾸고 있는 한국에 있는 지도자들과 예비지도자들에게 중국은 위험도도 높지만 그만큼 많은 기회를 줄, 성공의 기틀이 될 수 있는 곳이라고 강조하고 싶다.

2011년 Master K 한중 태권도 교육관은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여 2006년 4월부터 오픈한 자리에서 더 큰 공간과 최고의 인테리어로 본관을 확장/이전하였다. 앞으로도 나의 추진은 계속될 것이며 이러한 추진은 태권도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와 국력을 전파하고 상징하는 커다란 힘으로 자라나길 바란다.



국가브랜드위원회와 세계태권도연맹의 업무협약



7월 21일, 국가브랜드위원회(위원장 이배용)와 세계태권도연맹(총재 조정원)이 '태권도 세계화와 국가대표 브랜드로의 가치향상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하였다. 국가브랜드위원회의 10대 주요 추진 과제 중의 하나인 '태권도 명품화'와 관련하여 두 기관은 태권도 명품화 및 세계화를 위한 사업을 협력 추진, 7천만 명이 즐기는 태권도가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국제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브랜드 사업과 개발도상국을 위한 해외봉사활동 사업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두 기관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한국의 정신적 가치를 세계에 전파하는 많은 활동을 할 것이라 하였다. 업무협약식이 끝난 후 국가브랜드위원회 건물 앞 광장에서 태권도 시범단의 기념공연이 열렸다.

출처_ 국가브랜드위원회 공식 블로그 '코리아브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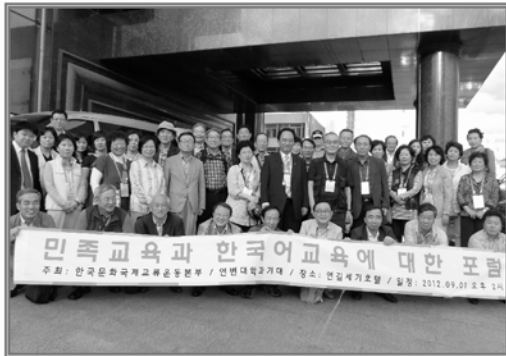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활동 소식

International Center for Korean Culture (ICKC-Seoul)

■ 연변자치주 60주년 기념행사 참관

연변 자치주 60주년 기념행사에 본부 회원 45명이 9월 1일~9월 5일,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참석하였다. 주요 일정은 아래와 같다.

날 짜	내 용
9월 1일(토)	민족교육과 한국어 교육에 대한 포럼(강사: 연변대 김호웅교수)
	시정부 환영만찬
	연길시 예술단 공연 관람
9월 2일(일)	연길·두만강 지역 국제투자무역박람회 개막식 참여 및 전시회 관람
	서시장 & 연변대학 방문
9월 3일(월)	연변 조선족 자치주 60주년 기념식 및 행사 참관
	두만강 & 용정일대 답사
9월 4일(화)	백두산 관광
	주정부 주최 만찬
9월 5일(수)	폐회



<연변 60주년 행사 참가자>

강명진 공명실 구병진 김정심 김경자 김길남 김동필 김만복 김성열 김은자 김태열 김태진 김혜련
 김호일 김희자 박갑수 박용남 박원출 박의근 손희정 송상용 송신자 신진문 심옥주 위호인 이대근
 이동기 이명희 이송준 이영화 이향구 이현우 이형모 장영석 전영섭 정일권 정현관 조영순 조춘연
 채숙자 최우영 최재우 최정희 허해룡 홍순호 (가나다 순)

■ 임시총회 개최

기부금 지정단체 인가를 위한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임시총회가 7월 10일(화) 18:00, 신당동 사대감자탕에서 열렸다. 재적회원 63명 중 35명의 회원, 재적감사 2명 중 2명의 감사가 참석, 아래의 안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 제1호 의안 : 정관 제31조(재원) 및 제38조(기부금공개) 변경
- 제2호 의안 : 정관 제5조(회원자격) 변경



■ 7월 문화탐방

ICKC 7월 문화탐방은 '낙산과 쌍계동천 & 옥란문화재단 문화 탐방' 으로 이루어졌다.

- 낙산과 쌍계동천 (일시 : 2012년 7월 10일(화) 14:00~18:00)
 - 탐방코스 : 재중원터 - 북촌 - 남북회담사무국 - 옥류정 - 외룡공원 - 응봉 - 성균관 - 반촌 - 대학로 - 낙산 - 적산가옥 - 북평관터 - 흥인지문 - 오간수문 - 동대문역사공원 - 광희문
- 옥란문화재단 문화탐방 (일시 : 2012년 7월 14일(토), 09:30~18:00)
 - 장소 : 국립산림과학원(수원), 옥란재(화성)
 - 내용 : - '나무를 통해 인생의 의미와 만나다' _ 국립산림과학원 시험림 탐방(정현관 박사)
 - '음악회와 함께하는 옥란재 이야기 숲 학교 _ 옥란재 탐방 & 숲이야기 (정현관 박사, 홍사중 소장)
 - 남성중창단 공연



■ '세계태권도연맹-경희대 태권도 프로그램', 본회에서 한국어 강의

매년 여름 열리는 '세계태권도연맹-경희대 태권도 프로그램(WTF-KHU Taekwondo program)' 의 한국어 강의를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에서 담당하였다. 이번 강의를 통해 태권도를 통해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해 낯설지 않은 그들을 접하며 한국어와 태권도의 연계에 대한 가능성과 효율성이 확인되었다. 한국의 대표적 문화인 두 영역의 상호 접목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크게 기대된다.

■ (주)신동 김용구 회장, 고문으로 추대

7월 운영위원회에서 (주)신동 김용구 회장(18대 국회의원)을 본회 고문으로 추대하였다. 김용구 회장은 중소기업진흥회 회장으로 있으며, 고문 취임 기념으로 4.0시대 중소기업 이야기를 다룬 그의 저서 『9988』 100권을 본회에 기증하였다.

10월 문화탐방 안내 “혜정박물관 & 경희대 태권도 교육 참관”

2012년 ICKC 10월 문화탐방은
우리나라 최초로 설립된 최대 규모의 고지도 전문 박물관인 '혜정박물관' 견학과
경희대 태권도 교육 참관으로 이루어 집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 일시_ 10월 9일(화), 오후 3시
- ◆ 탐방 장소_ 경희대 국제캠퍼스 중앙도서관 내 “혜정박물관” & 체육대학관
- ◆ 집결 장소_ 경희대 국제캠퍼스 중앙도서관 1층 로비(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흥대로 1732)
<연락처> 경희대 T. 031-201-2114 / 혜정박물관 T. 031-201-2011~4
- ◆ 문의_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사무국 T.02)2285-1070 F. 02)2285-5070

* 11월 문화탐방은 경북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50만 명의 운명을 바꾼 책! 방송대학 교재가 이제 당신을 응원합니다!

졸업생 50만 명, 재학생 18만 명.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각지의 방송대 학생들은
방송대 교재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내용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40년간 사랑받아온
방송대 교재가 이제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 한국어의 국제화를 응원하는 방송대출판부 추천도서 -

-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 읽기
Readings in Korean Culture for Foreigners (국영문 합본)
김해욱 저음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평생교육원 위음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평생교육원 위음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지식의나눔 에프스티메 press.knou.ac.kr

■ 후원회비 보내 주실 곳

- 신한은행 100-027-567461 (예금주 :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 국민은행 068801-04-248856 (예금주 :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